



컨트리공방



빅밴드

/광주문화재단 제공

한여름 밤 지구촌 음악여행 떠나요

빛고을 뮤직페스티벌 'DJ와 함께 떠나는~'

내달 8~1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앤디킴트리오·이정선 밴드 출연

DJ의 해설과 함께 재즈, 블루스, 포크, 컨트리 미국 아메리카 음악을 한자리에서 들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의 브랜드형 기획 프로그램인 빛고을뮤직페스티벌 'DJ와 함께 떠나는 한여름의 세계 음악여행'이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DJ와 함께 떠나는 한여름의 세계 음악여행'은 광주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추진하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빛고을뮤직페스티벌 역시 지난 2년 동안 프로그램의 총괄연출을 맡았던 문화기획자 장용석씨가 예술 감독으로 참여해 국내 최고의 라인업으로 구성했다.



앤디킴 트리오 (왼쪽부터) 앤디킴, 윤덕현, 김인영

이번 공연은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장르인 재즈, 블루스, 포크, 컨트리 등 매력적인 아메리카 음악을 주제로 선보인다. 이 지역 최고의 인기 DJ 문형식씨의 해설이 어우러지는 렉처 콘서트를 통해 시원한 한여름 밤의 공연을 선사한다.

8일 공연은 최근 국내 재즈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앤디킴 트리오가 나선다. '재즈, 아메리카의 영혼 I'을 주제로 대중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미국 정통 재즈를 연주하는 무대다.

9일은 '포크, 민중의 음악'이란 주제로 대한민국 포크 음악의 선구자인 이정선 밴드가 포크 음악의 정수를 관객에게 선사한다. 10일은 대

학교수이자 탁월한 색소포니스트인 박수웅이 이끄는 재즈 오케스트라가 빅밴드의 세계로 초대하는 '재즈, 아메리카의 영혼 II'가 펼쳐진다.

11일은 현재 국내 유일의 컨트리 음악 밴드로 많은 팬덤을 갖고 있는 컨트리 공방이 '컨트리, 민속에서 팝으로'란 주제로 컨트리 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 대망의 마지막 날 공연인 12일은 국내 블루스 음악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뮤지션 김목경이 이끄는 김목경 밴드가 대중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사운드를 통해 '블루스, 경계의 음악'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장용석 예술감독은 "이번 페스티벌은 지속가능한 브랜드 공연으로 정착하기 위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기획됐다"며 "코로나 19를 이겨낸 광주시민과 침체된 공연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구촌의 음악, 세상의 다른 장르의 음악을 시민들과 함께 향유해보는 위안과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연장 내에서는 식음료 섭취가 불가하고 마스크 미착용시 관람이 제한된다. 입장료는 전석 5,000원이며 예매는 12일부터 티켓링크에서 시작했다. /이나라 기자

서양화가 지성심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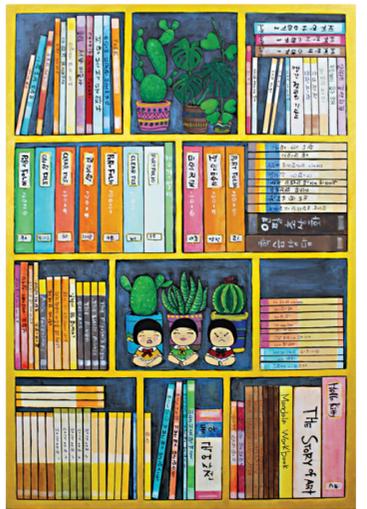
31일까지 전남대병원 갤러리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이 꽃과 같이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전시가 오는 31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 갤러리에서 열린다. 서양화가 지성심 작가 초대전이다.

전남대학교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지역 작가를 초청,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지성심 작가의 전시 주제는 '오늘도 화양연화가 되자'다. 현재 갤러리에는 총 16점의 지성심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성심 작가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크레용, 붓, 쓰다 남은 매니큐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새로운 작품을 표현했다. '화양연화'는 삶이 꽃이 되는 순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지성심 작가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수료 후 광주미술협회, 광양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개인전은 물론 수많은 단체전에 참여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광양 공공미술프로젝트 참여작가, 광양사라실예술촌 레지던스



지성심 작가 '나의서재' /전남대병원 제공

& 입주작가는 물론 광양노인복지관 미술심리상담 강사, 광양 비전나무 아동·청소년 미술심리상담 강사로도 활동했다. /이나라 기자



동신대 뮤지컬 실용음악학과 '시간 속 갈매기' /ACC재단 제공

지역 예술대학생들 공연, 무대 오른다

17~23일 ACC예술극장 극장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2022 예술대학협력 공연 프로그램'에 선정된 3팀의 공연을 ACC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올린다.

'2022 예술대학협력 공연 프로그램'은 미래 문화예술 창작의 주역이 될 광주·전남·전북지역의 공연 관련 예술대학 학생들에게 공연을 제작해 ACC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연 지원사업이다.

이번 협력공연 무대는 여러 장르의 예술전공자들이 모인 동신대 뮤지컬 실용음악학과 학생

들이 다양한 예술적 재능으로 만든 '시간 속 갈매기'로 막을 연다. 악기 연주와 보컬들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음악과 연극을 통해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공연은 17일 오후 5시다.

이어 19일 오후 7시에는 전남대 음악학과 학생들이 구성된 금관 앙상블 'CNU BRASS' 팀이 관객들에게 금관악기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팀인 전주대 공연방송연기학과는 문명의 이기로 인해 훼손되는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 '시정각살'을 선보인다. 공연은 23일 오후 2시와 오후 5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최진화 기자



김환기 '우주' /크리스티코리아 제공

김환기 '우주' 소장자는 김웅기 회장

한국미술품 가운데 132억 원에 낙찰돼 가장 비싼 작품인 김환기의 대표작 '우주' (Universe 5-IV-71 #200) 소장자가 글로벌세아그룹 김웅기 회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글로벌세아그룹은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 갤러리 S2A를 개관해 김웅기 회장이 소장한 김환기의 '우주' 등 국내외 현대미술 대표 작품들을 소개하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진행된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우주를 약 131억8,750만 원(구매 수수료 미포함)에 산 것으로 전해졌다. 경매 당시 미술계 일각에서는 낙찰자가 외국인 사업가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김 회장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3년 만에 확인됐다.

김환기 작품 중에서도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는 '우주'는 작가의 작품 가운데 가장 큰 추상 화이자 유일한 두폭화다. /연할뉴스

www.aroma-life.co.kr

Aroma Life
기능성 속옷의 명가 | (주)아로마라이프

名家

기능성 속옷의

쾌적/편한/예쁜/기능성 속옷은 "정말" 있습니다.

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아모라이온

브라+슈트+거들
5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라이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래깅스
5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슈에뜨, 루디아

블랙온사 바디 슈트의
온사 레이스 품평회 1등

1.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5개국 특허 체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2.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3.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 효과

광주본사 | 전문상담 및 사업 문의: 1588-2219 | 명품관(사적문의): 070-4909-4660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35 V&G빌딩 서울본점 | 전문상담 및 사업 문의: 02-882-4569 | 명품관(사적문의): 070-7726-1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